종이 냄비·캠프 샤워·계란 케이스…

캠핑족 더 늘겠네

인터넷 쇼핑몰, 기능성 캠핑용품 본격 출시

성큼 더위가 찾아오면서 인터넷 쇼핑몰마다 본격적으로 캠핑 아이템을 출시했다.

특히 최근 수년 새 캠핑족이 부쩍 늘어가면서 '나홀로 여행족'은 물론 가족과 연인 여행객까지, 캠핑족의 눈에 띌만한 기능성 캠핑용품 판매도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인터넷 쇼핑몰 '옥션'에 따르면 지난 5월 캠핑용품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인기가 높은 대표적인 캠핑용품 중 하나는 잠자리를 해결하기 위한 침낭. 침낭 가운데서는 따뜻함과 편안함을 강조한 기능성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BUCK703 캠핑전용 침낭'(8만3000원)은 3면이 지퍼형이어서 지퍼를 모두 열면 완전히 펼쳐져 담요로도 쓸 수 있다.

야외 캠프장 특성상 씻을 만한 곳이 여의치 않을 때를 위한 다용도 텐트도 등장했다. '캠프타운 원터치 자동 캉가루텐트'(10만6000원)는 샤워실뿐만 아니라 간이 탈의실, 화장실로도 활용 가능한 이동식 제품이다.

'캠프샤워'(6700원)는 20ℓ 가량의 물을 담을 수 있는 워터백에 샤워기를 연결, 야외에서 간단하게 몸을 씻을 수 있는 샤워용품이다. 물의 온도를 잴 수 있도록 온도계를 부착했다.

캠핑 필수품 중 하나인 랜턴이나 플래시를 미리 준비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해피몰 헤드랜턴'(7520원)은 야간 등산이나 작업 시 사용하는 14구 LED가 장착돼 밝고 오래가는 것이 특징이다.

'복돼지 자가발전 플래시'(3800원)는 건전지가 없어도 불을 밝힐 수 있다. 본체의 자가발전 손잡이를 누르면 제품 내부의 전지가 충전된다. '드림스토어 압축 수건'(1000원)은 달걀 모양의 포리백을 벗겨내면 직사각형 모양의 큰 수건 형태로 변신하는 상품으로 휴대성이 높아 여행객이 즐겨 찾고 있다.

이와 함께 깨지기 쉬운 달걀을 안전하게 담아갈 수 있는 '프로칸 계란 케이스'(4450원), 야외에서 간편하게 찌개나 라면 등을 끓여 먹을 수 있는 일회용 '들바다 종이냄비'(2200원) 등도 캠핑족 사이에서 필수 아이템으로 떠올랐다.

또 물놀이를 위한 각종 튜브나 공에 손쉽게 바람을 넣을 수 있는 '미니 발펌프'(2970원), 모기에 물리는 것을 막아줄 '원터치 레이스 모기장'(2만2470원) 등도 야영 생활을 위해서는 꼭 챙겨야 할 상품으로 꼽힌다.

옥션 관계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먼 거리를 가지 않아도 즐길 수 있는 레저 문화의 하나로 캠핑이 떠오르면서 관련용품을 찾는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연합뉴스

인터넷 쇼핑몰 1등 상품은?

'커피믹스'

인터넷 오픈쇼핑몰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은 커피믹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쇼핑몰 '옥션'(www.auction.co.kr)은 '2011년 상반기 히트상품 10'을 집계한 결과, 커피믹스가 1위를 차지했다고 2일 밝혔다.

옥션은 올 1월 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옥션에서 판매된 제품 중 판매량과 전년 대비 판매 증가율, 옥션 CM 추천, 인기 키워드 순위 등 4가지 기준으로 히트상품을 선정했다.

1위를 차지한 커피믹스는 상반기에만 119만개 이상이 판매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5% 늘어난 수치.

3인용 전기매트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85만개가 팔려나가며 2위를 차지했다. 최근 황사 대기오염 등으로 일반인 사이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되면서 판매량이 늘어난 물티슈가 50만개로 3위에 올랐다.

4위는 올해 상반기에 20만대가 판매된 스마트폰, 5위는 12만개 가량 팔린 다시마와 미역이 각각 차지했다.

이밖에 염색약과 음악 CD, 차량용 블랙박스, 백팩, 운동화 등이 10위권에 포함됐다./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카드 해지 전 포인트 꼭 사용"

여신금융協, 신용카드 포인트 활용법 소개

여신금융협회가 2일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포인트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주의사항과 활용법을 소개했다.

다음은 협회가 소개한 주의사항과 활용법.

▲적립률 높은 신용카드 사용하기=신용카드 포인트는 보유한 카드의 종류와 사용처, 전월 카드이용실적 등에 따라 적립률이 다르다. 자신의 소비패턴에 적합한 신용카드를 몇 장 선택한 뒤 결제할 때 포인트 적립률이 높은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포인트 자주 확인하기=자신의 신용카드 포인트가 얼마나 적립돼 있는지 알고 있어야 결제금액과 비교해 포인트 사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카드사 홈페이지, ARS, 이용대금명세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인트 사용처 꼼꼼히 확인하기=사용처가 현금과는 달리 한정돼 있어 사용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신용카드 포인트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는 자신의 포인트 적립액을 고려해 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유효기간 반드시 확인하기=적립된 포인트는 보통 적립일로부터 5년 동안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2년 또는 3년인 경우가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할 때부터 포인트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카드 해지 전 포인트 모두 사용하기=신용카드를 해지할 때 적립된 포인트를 고려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포인트 적립액을 확인해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는 모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부로 활용하기=사용처가 마땅치 않으면 포인트로 기부할 수 있다. 기부한 포인트는 기부영수증 발급을 통해 연말정산에서 절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

▲선지급포인트는 조건 꼼꼼히 확인하기=포인트 선지급 서비스는 이용하기 전에 포인트 적립률, 상환 가능한 포인트 적립기준·대상, 적립 제한 대상, 상환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인트 선지급 서비스 이용금액이 많을수록 포인트로 상환하기 위해 앞으로 사용해야 할 카드이용금액도 증가한다.

/연합뉴스

한우 1등급을 삼겹살보다 싸게

이마트, 내일 소비촉진 캠페인 30% 할인 판매

삼겹살보다 저렴한 한우 1등급 등심이 판매된다.

이마트는 4일 전국한우 협회와 함께 KB국민카드 또는 삼성카드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한우 1등급 등심(100g) 55톤을 3220원에, 한우국거리·불고기(100g) 150톤을 1960원에 판매한다. 기존보다 30% 할인된 가격.

최근 백화점에서 판매되는 일반 삼겹살 가격이 100g당 3290원인 점을 고려하면 한우 1등급 등심(100g) 가격 3220원은 삼겹살가격보다도 저렴한 가격이다.

쇠고기 가격이 돼지고기보다 떨어진 이유는 최근 2~3년새 국내 축산 농가의 소 사육두수가 280여만두에 달하며 사상 최대로 증가해 공급이 크게 늘어만 반면, 쇠고기 소비시장에서 한우 점유율은 올 들어 10% 가량 떨어지며 수요 감소까지 겹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마트 관계자는 "한우소비가 줄어들고 한우 가격이 6~7월 추가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한우 소비촉진을 위해 전국한우협회와 함께 한우소비촉진 캠페인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장터 소식

균일가 와인 대전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5일 '환경의 날'을 앞두고 환경사랑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 및 행사를 진행한다. 3일부터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쿨비즈 캠페인을 시작하며 7층 남성정장 매장에서는 쿨비즈 패션 마네킹 코디 및 행사를 진행한다.

6일 현충일에는 호국 보은의 달 특별 이벤트로 1층 정문에서 당일 백화점 방문 아동고객에게 태극기 페이스페인팅을 선착순 200명 진행하며 이날 백화점 구매 영수증을 제시하면 태극기 손수건을 100명에 한해 증정한다.

또 6일까지 지하 1층 식품관에서 'LOTTE WINE FESTIVAL'도 열린다. 그랑크뤼 와인 상품전으로 '06 샤또 피작' 15만원, '07 샤또 라노즈' 등이 6만원에 판매되며 프리미엄 와인 초특가로 '06 크레기 레인지 소피아 피노누아' 8만원, '로미또리오 디 산띠다메' 등이 9만원에 고객과 만난다.

이마트 여름상품 초특가전

이마트가 8일까지 대대적인 여름 상품 판매에 나선다.

여름 대표 가전인 에어컨은 이마트와 LG전자가 공동 기획, 이마트 단독 상품으로 2011년 최신 2in1 에어컨(15+6형·185만원)을 포함해, 인버터 2in1 에어컨(15+6형·235만원), 스탠드형 에어컨(12형·99만원)을 준비했다.

수입 맥주와 아이스크림, 토종닭 등 여름 대표 상품 또한 초저가전이 열린다.

하이네켄(네덜란드), 아사히(일본), 호가든(벨기에) 등 인기 수입맥주를 포함해 20여종의 수입맥주를 2000~2500원 균일가에, 빙그레 더위사냥, 롯데제과 수박바, 해태 쌍쌍바 등 유명 아이스크림 10여종은 가격동결된 3500~4200원에, 여름철 최고 보양식 방목 토종닭(하림/1kg)은 1마리에 1만800원에 각각 판매한다.

LG전자 3D 홈씨어터 출시

LG전자가 2일 입체음향을 구현하는 3D 홈씨어터 신제품을 출시했다.

새상품은 기존 제품과 달리 4개의 톨보이 스피커 상단에 다이아몬드 디자인의 상방향 3D 음향 스피커를 배치, 청취자 머리 위에 소리가 쏟아지는 듯한 '사운드 샤워' 효과를 낸다. 또 서브우퍼 2개를 적용한 듀얼 서브우퍼 시스템으로 깊이있는 중저음을 구현하고, 시네마 돔 3D 사운드 기술로 영화관에서 느끼는 생생한 현장감을 제공한다. 가격 149만9000원.

키엘, 여름용 수분크림

로레알 그룹의 화장품브랜드 키엘은 여름용 수분크림 '울트라 훼이셜 오일-프리 수분 젤 크림'을 출시했다.

키엘은 이 제품이 자사 인기상품인 수분크림의 기술을 유지하면서 끈적임 없이 산뜻한 겔 타입으로 바꾼 제품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빙하와 사막 지역의 식물과 천연당 추출물을 함유해 수분 손실을 방지하고 기름, 실리콘, 방부제인 파라벤, 인공향, 인공색소를 넣지 않은 저자극 제품이라고 말했다.

칼로리 '절반' 주스

롯데칠성음료가 열량을 반으로 줄인 '트로피카나 ½ 칼로리'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주스의 원래 맛을 살리면서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열량을 기존 제품의 절반인 25kcal(오렌지 100㎖ 기준)로 줄였다. 이는 허브잎에서 추출한 스테비올배당체와 효모발효액에서 얻은 에리스톨 등 천연감미료를 썼기 때문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오렌지·포도맛이 나왔다.

대우일렉 최대형 전자레인지

대우일렉트로닉스는 2일 국내 최대형인 34ℓ 상업용 전자레인지를 출시했다.

신제품은 가정용 제품보다 2배 빠른 조리가 가능하고, 해동과 데우기 등 용도에 따라 출력량을 4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

대우일렉은 하반기 중 27ℓ와 29ℓ 신제품을 추가로 내놓고, 제품 라인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가격 40만원대.